



동방 박사들의 경배

도밍고스 세케이이라

(Domingos Sequeira, 1768-1837)

1828년, 캔버스에 유채, 100 x 140cm

국립 고미술관, 포르투갈 리스본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

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L.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희망의 순례자, 동방 박사



최광희 마태오 신부 | 문화홍보국장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공현’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공현 대축일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린 시절 조금은 엉뚱했던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성탄을 기뻐하면서도, 삼왕이 안치되는 공현 대축일을 더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성탄 구유는 동방 박사들이 자리를 잡고 놓일 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이 기억에서 공현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길을 떠나왔을까요? 그들은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섰습니다. 오직 별빛을 따라 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동방 박사들은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표징에 따라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낯선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뎌야만 했을 테니까요. 두고 온 안정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와 집착이 이들의 발목을 계속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끈덕진 기다림 덕분이었

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코헬 3.1)는 고백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인내심의 원천이 되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정을 견디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인내심이 동방의 별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지식도 아니며,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로데왕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을 통한 기다림이 없었기에 별도 메시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이 표징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탄과 희년의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희망’을 묵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믿음을 통해 기다림의 덕을 쌓으며 얻은 결실은 바로 ‘희망’입니다. 어두운 밤중에만 길을 걸어야 했던 그들은 오히려 밤에도 별이 밝게 빛나며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확신 속에 희망을 키웠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자리를 잡고 완성된 모습, 그 장면은 바로 희망이 실현되어 완성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탄한 삶에 지쳐 슬픔에 그저 젖어 들지는 맙시다. 주님을 향한 희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찾아 나서는 현대의 동방 박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동방 박사와 함께

동방 박사는 주로 노년, 중장년, 청년 혹은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상징에 포함시키려는 교회 공동체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님께 모여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하여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이 연대하고 소외된 이들도 아우르는 공동체를 아기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칠레 남쪽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백현실 라우렌시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칠레 선교사

20년 전 칠레에 도착한 후 5개월의 스페인어 공부를 마치고 콘셉시온 공동체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콘셉시온은 산티아고에서 500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의 도시입니다. 시원한 맑은 공기에 잘 정돈된 도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두 명의 칠레 수녀님, 한 명의 이탈리아 수녀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여럿 모여있는 콘셉시온은 청년 사목과 함께 성소 사목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제와 수도자 성소도 많은 지역입니다. 휴가철, 칠레 교회 젊은이들은 한 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앙 체험을 나누는데, 이를 미션이라 합니다. 우리 수도회도 성소 사목의 일환으로 산티아고의 젊은이들과 함께 콘셉시온 가까이 '왈키'라는 지역으로 미션을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걱정과는 달리,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 서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이 사람들은 언어와 더불어 관습, 역사, 유머를 통해 칠레를 소개해 주었고, 특히 가정 방문은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외된 지역일수록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과 가난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짧은 한 철이었지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미션을 하면서 왈키는 저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요청으로 셋째 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본당의 병자와 노인들을 방문하여 봉성체를 해 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작은 이 나눔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주일 미사와 공소 미사까지 신부님을 동반한 후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편에 서신 이유가, 다만 그들이 고통 당하고 있

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뱉속 깊이 체험한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문과 영성체로 행복해하시던 그분들은, 막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던 제가 이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칠레의 남쪽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에 관대합니다. 처음 보는 이방인 수녀에게 보인 그들의 환대는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자동차를 세운 후, 어디서 왔느냐,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묻는 바람에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주저 없이 다가와 주었던 이 친절하고 사람들 덕분에 이곳에서의 적응도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하고 사람들과 하느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저도 제 시간과 가진 것, 그리고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미정 노엘라 | 작가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이 바친 제물은 거 부하시자 이에 질투를 느껴 동생을 죽인 카인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가정 폭력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예수의 까

리따스 수녀회 운영)에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카인과 그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폭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온 성인 자녀들, 서로를 닦하는 젊은 부부, 의견 충돌로 흥기를 들게 된 남매, 자녀를 폭행한 어머니 등 너무나 많은 가족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폭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족에게만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어렵게 말을 꺼낸 준수(가명) 씨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어릴 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폭력을 가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가정 폭력을 당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이 끊을 수 없는

순환 고리 안에서 폭력은 대물림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담과 교육으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상처투성이인 이들이 치유를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5년간 가정 폭력으로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면 1번의 상담보다는 지속적인 상담이 절실합니다. 조금만 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더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면 가족 해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정 폭력 피해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상담소의 인력만으로는 신규 가정 폭력 피해 상담과 기존에 접수된 피해 가정의 개별 상담을 감당해 낼 수 없어 외부 상담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외부 상담 전문가 협력이 불가능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상담의 기회조차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면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1월 4일~3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를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입금자와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이 일치하도록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일과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우측 QR코드 입력 ② 인터넷 신청: www.babo.or.kr/hand ③ 전화 신청: 02)727-2508 (재)바보의나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교회와 성체성사와 마리아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성모 신심은 유명합니다. 교황 즉위 후 교황 문장(文章) 중심에 십자가와 함께 마리아를 뜻하는 'M'자를 새겼습니다. 본인 소명을 '토투스 투우스'(Totus Tuus, 온전히 당신 것)라 정한 것도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기 위함입니다. 교황은 재임 중 활발한 사목 활동을 하였고, 많은 교회 문헌을 발표하셨는데, 성체성사 관련 문헌이 2003년 반포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vivit)입니다.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회칙은 제1~5장까지 성체성사의 유래, 교회와 관련성, 성체성사가 교회의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제6장은 성체성사와 성모님의 관계를 다룹니다. 회칙은 교회와 성체성사와 성모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설명합니다. 비록 성찬례가 제정된 성목요일 밤 성모님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 승천 뒤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첫 공동체에서 기도하던 사도들 가운데 성모님이 함께하셨음은 당연하고, “빵을 나누어 먹는 일에 전념한”(사도 2, 24)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찬례에 성모님은 분명 함께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성모님을 ‘성체성사의 여인’이라 칭합니다.^(53항) 성모님이 초대 교회의 성찬례에 참석하신 것은 물론, 성체성사의 첫 시작부터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해 봉헌하심으로 성스러운 예수님 몸을 당신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모든 신자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성모님이 당신 안에 먼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잉태하셨기에, 이 회칙은 성모님을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라 합니다.^(55항)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 22, 19).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몸은 성모님이 당신 태중에 잉태하셨던 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셨고, 초기 교회 성찬례에 참석하셔서 다시 몸 안으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성모님이 성체를 받아 모신 것은 당신의 심장과 하나였던 그 심장을 다시 당신 태중에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서 겪으셨던 일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56항)

가톨릭교회는 성모님께 최상의 호칭과 최고의 존경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하늘에 올람을 받으신 분! 하지만 성모님 삶을 묵상해 보면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를 ‘고통의 어머니’라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고, 그분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잉태 순간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성모님의 삶은 하느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신앙과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성모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손의 무게



이우형 베드로 | 청년꾸르실로 체험 및 봉사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잘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손’입니다. 기도손이라고 하면 웬지 초등부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만 어울릴 법한 표현인데 저는 여전히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미사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사를 서면서 전례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틀리지 말아야지.’, ‘잘해야지.’에만 마음을 쓰며 성전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음을 다해 미사에 참례하면 정작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많은 것들이 미사 중에 제 관심을 끌며 저를 부산스럽게 하다 보니, 오롯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손을 모으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인 듯 안 모인 듯 꿈지락거리는 제 손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회심의 기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단순한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기도손은 제가 온전히 미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나면, 마음이 모이고, 그리고 나면 미사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과정들이 청년에 이르

러서야 가능해졌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의 체험담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다른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신부님께서서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기도와 복음을 봉독하셨는데, 하나의 깨우침이 스쳐 갔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왔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읽을 수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기도손은 더 깊은 집중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도손 만큼은 하느님께서 지켜봐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면서 많은 것에 부딪히고 때론 주저하며 분투하는 와중에도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현실과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의 쓰임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제가 감내해야 하는 것들은 ‘기도손의 무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나는 하느님의 청년으로서 사랑으로 가득 차 발맞춰 당당히 나아가는 대희년 2025년이 되도록 기도손에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1

두 개의 천국을 품은 사람

복자 황일광 시몬(1757-1802)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 모진 형벌에 다리가 부러져 들것에 실린 채 형장인 고향 홍주로 압송되는 복자 황일광 시몬(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복자 황일광 시몬은 홍주의 천한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갓은 천대 속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41세 때 홍산으로 이존창을 찾아가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문득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우 황차돌과 함께 경상도로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오로지 충직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들 형제에게 모종의 역할이 맡겨진 것입니다.

경상도로 간 황 시몬은 그곳 신자들의 애덕 속에 아무 편견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 벽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는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제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저처럼 천한 백정을 이렇듯 점잖게 대해 주시니, 이 세상의 삶이 제게는 천국입니다.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늘나라는 또 하나의 천국이지요.”

비참하고 멸시당하던 시궁창 같던 삶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기쁘고 벽찬 삶으로 변했습니다. 지상의 삶이 이렇진대 천국의 나날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는 찬송과 경배를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의 부름을 받아 명도회장 정약종의 집으로 옮겨가 그 튼튼한 몸으로 교회를 위한 온갖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이후 정약종을 따라 서울로 온 황일광은 마침내 주문모 신부님께 영세를 받고 시몬이란 세례명까지 받는 벽찬 기쁨을 맛보았지요.

1801년 2월, 정약종보다 며칠 앞서 체포된 그는 다리 하나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잔혹한 고문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해 11월까지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황사영이 숨은 곳을 대라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가 교회 수뇌부를 오가며 심부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고문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고 속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지극한 소원”이라며 일체의 진술과 배교를 거부했지요.

조정은 그를 홍주까지 끌고 가서 그곳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져 걷지 못하는 그를 들것에 싣고 간 포졸들만 죽을 맛이었지요. 들것 위에서도 그는 조금의 두려움 없이 명랑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홍주에 도착한 당일에 45세의 나이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의 그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달래는 1874년에 파리에서 간행된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교우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의 하나로 경의와 감탄 속에 입에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낮고 미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가 순교로 온 교회가 기억하는 첫 번째 자리에 당당히 오르게 된 것이지요.

날마다 투덜대고 걸핏하면 남 탓하며, 기도의 기쁨조차 까맣게 잊은 우리에게 그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천국은 몇 개인가요?”

오늘(1월 5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김완석 신부	제3 은평지구장	겸) 수색 본당 주임서리
홍상표 신부	수색 본당 주임	정직
김재화 신부	제15 영등포-금천지구장	겸) 대방동 본당 주임서리
박경근 신부	대방동 본당 주임	휴양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3년 1월 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천주교 서울대교구 모원 성모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모 안내

미사: 1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식사 및 성모-개별 준비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 (02-727-2225)후 승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 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2월 30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1월 23일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모 안내

미사: 2025년 1월 26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식사 및 성모-개별 준비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3월 24일~4월 4일(11박 12일) / 지도: 김상우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1월 5일(주일)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월 9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24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슬픔 속 희망찾기' 2025년 1월 유가족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이인재 신부(예수회)
때: 1월 18일 매월 세번째 (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5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악자자격증 과정 모집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원서접수: 1월 6일(월)~24일(금) /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 6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월 6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 / **전화(상담):** 02)727-2137

제7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때, 곳: 1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78, 2283

2025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내용: 참된 신심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프랑스 루르드 8일 피정: 8월 13일~23일(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의용소방대 피정**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 2) **소방사목 큰사랑 봉사회 봉사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 3)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144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 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나남 본당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문종원 신부 외 6인전: 1전시실
리길재 사진전: 2전시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개교 170주년 기념 예림 회원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 3일(금)~12일(주일)

약혼자 주말

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생활 준비(금~주일 2박3일)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혼인 1년 미만의 신혼부부 / **접수:** 선착순 20커플,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약혼자주말' 참조 / **회비:** 커피당 38만원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순교자현양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3회)**
때, 곳: 1월 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곳: 1월 19일(주일), 명동대성당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 절두산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당고개 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신청: 1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3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예수기도 피정 / 문의: 010-5230-2986

때, 곳: 1월 31일(금) 15시~2월 6일(목) 13시,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주최) / 회비: 40만원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4월 24일~5월 5일, 성모발현지
회비: 520만원 / 문의: 010-7374-3217

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월 23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1월 1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김화섭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월 20일(월) 13시~16시 / 미사, 강의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최황진 신부(수원교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월 12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2025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살레시오회)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미혼 남성
때, 곳: 2월 7일~9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1월 31일까지 접수 / 문의: 010-6221-352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60, 010-4154-0885

2박3일	1월 10일(금)~12일(토), 2월 14일(금)~16일(주일), 3월 1일(토)~3일(월), 5월 23일(금)~25일(주일)
8박9일	8월 6일(수)~14일(목) 40일 6월 21일(토)~7월 30일(수)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2월 25일~26일, 3월 25일~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5월 14일~25일(KE)
홍성남 신부와 도교	3월 10일~14일
남큐슈 이브스키	5월 6일~10일(KE)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2월 7일 10시~15시30분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1월 10일~12일(2박3일)
토요 성모신심 기도·미사	매월 셋째주(토) 1월 18일 10시~12시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후회)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김영철 신부(전국대표담당 의정부교구담당 4지구장)
때, 곳: 1월 15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환희의 신비 강의, 성체조배
때: 1월 12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월 3일~6일·1월 10일~13일·2월 7일~10일·2월 21일~2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부부는 예수님이 친히 맺어주신 짝이며 예수님을 향해 함께 가는 순례자이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월 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매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1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매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매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1월 6일(월) 10시~16시

2) 1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때: 1월 11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포함 1월 11일~13일·1월 16일~18일·1월 20일~22일·2월 7일~9일·2월 21일~23일·2월 25일~27일,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추차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추)·3월 29일~31일·4월 1일~3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한라산 눈꽃산행 1월 17일~19일·1월 23일~25일·2월 8일~10일·2월 14일~16일·2월 22일~24일, 추차도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3월 9일~12일·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2월 5일~19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가톨릭영화인협회)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문의: 0507-1424-0712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ECYD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그리스도 레지오회)

대상: 초5~6학년 남학생 / 문의: 010-6865-3765

때: 2월~5월 격주(토) 총8회 모임

카카오톡 채널: 그리스도레지오회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6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2월 6일까지 접수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

때: 2월 11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온라인 Zoom / 문의: 02)333-9898 한국CLC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 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2025년 예수회 청년 마지스서클 3기 모집

이나시오 영성 배우터, 여름 제주 마지스 대회

대상: 33세 이하 청년 / 인스타그램: @magis_kr

때: 일정 2월~7월 월 1회 배우터·첫모임 2월 22일

(토) 14시·제주 마지스 대회 8월 5일~12일(3일간

파견 체험 포함) / 신청링크 통해 접수(면접 선발)

회비: 50만원 / 문의(접수): 02)3276-7706(magis.kr@gmail.com) 예수회 청년센터

2025년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12만5천원(6개월 과정) / 문의: 02)995-7394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1월 8일(수)	13시30분~15시	
1월 9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1월 10일(금)		19시~20시50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1월 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등)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최시영 신부
(화) 마태오의 예수이야기-토라, 계곡,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3	송봉모 신부
(수)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영 교수
(수) 단테 '신곡' 지옥편-배신과 우정	김산준 신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	최지원 수녀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여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코딩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학습지도, 기타 지도 가능·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의 해(지혜의 샘)

곳: 지혜의 샘(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 010-3248-9705
1) 33일 봉헌 영성강의: 매주(월) 10시~12시30분
2) 봉헌기도(2025년도 총12회 봉헌)
때: 2차 봉헌(2024년 12월 16일~1월 17일)과 피정(1월 20일(월)), 3차 봉헌(1월 22일~2월 23일)과 피정(2월24일 월)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6차 모집

접수: 1월 6일(월)~17일(금)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월 18일(토) / 모집: 게임그래픽·만화에 니메이션, 게임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모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명동대성당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연탄나눔, 환경캠페인, 사회복지시설방문, 농촌 체험, 해외봉사 등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초6~고3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문의: 010-2633-2025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주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 19일(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서울대교구 어린이 합창단 '마니파켓' 2025년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6학년 가톨릭(예비) 신자(3월 기준)
연습: (화) 18시·(주일) 13시·돌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때: 1월 19일(주일) 14시30분 / 문의: 02)338-7832
곳: 청년문화공간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게시판 참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월 16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돌째주(토) 1월 11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최민성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월 6일(월) 14시, 국군중앙유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월 8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모래놀이상담 가능, 참 나를 만나는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대상: 중년층) / 문의: 010-2199-3439

사랑의 손길 드림블라썸아카데미 작품 전시회

때, 곳: 1월 8일(수)~15일(수), 노화랑(종로구 인사동길 54) / 내용: 발달장애인 작가 작품 30여 점 전시
문의: 02)2235-8539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갯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정신역동과 소통훈련 2박3일 집단상담

때: 1월 22일(수) 10시~24일(금) 17시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상담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청소년활동 지도(활동운영팀)
2월 16일(금)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한국카리타스인태셔널 직원 모집

분야: 후원관리 및 홍보 1명(계약직)
1월 17일(금)까지 이메일(caritas@cbck.or.kr) 접수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서울대교구청 빈민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빈민사목 활동에 이해를 갖춘 분
분야: 교구사무원 2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운영지원팀 1명(회계·후원회관리·홍보·행정 등), 현장활동팀 1명(현장조직·사회주택 연계사업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월12일(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이메일 문의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참조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특수사목 사제관 (중구·성북구)	1월 12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성 엠베르 센터 (피정의 집, 진관동)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노틀담 수녀회	1월 24일(금) 20시~26일(주일) 15시 / 성소 피정	수녀원(인천 계산동)	010-3930-6730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수도원 가는 길

한필남 · 한계전 부부의
중세 수도원 가다 두 번째 이야기

한필남 · 한계전 지음
새미 | 334쪽 | 2만9천원
문의: 02)442-4623

지난 2003년부터 15년간 방문했던 수도원 중 인상 깊은 곳들을 모아 정리했던 <한계전·한필남 부부 중세 수도원 가다>의 후속작이 출간됐다. 이번 책은 저자가 첫 권에서 아쉽게 빼놓을 수밖에 없었던 곳들을 추려 정리한 결과물이다. 1983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으로서 그들을 향한 저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신간

지혜 여정 - 시사와 지혜서3
(욥기, 코헬렛)

함원식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인간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깊이 다루는 구약성경의 '욥기'와 '코헬렛'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일상에서 성찰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공부 교재이다. 인생의 의미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줄 것이다.



신간

지혜 여정 - 예언서3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박형순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 그리고 그 후의 고난과 희망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예레미야서'와 '애가'와 '바룩서'를 그룹이나 개인으로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성경 교재이다.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다.



신간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고해성사란

미셸 존스 슈뢰더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96쪽 | 7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고해성사는 고백, 화해, 참회 등 여러 특징을 지녔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성사에 대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꼭 봐야만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끄럽고, 두렵고...' 이 가이드 북은 하느님의 자비와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고해성사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신간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

미셸 존스 슈뢰더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88쪽 | 7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성령'이라고 하면 불이나 비둘기 등 상징을 떠올릴 뿐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다.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으로 굳세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애를 쓰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령을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집회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80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